

2008학년도 의·치위학교육입문검사

제 1 교시

언어추론

계열 공통

성명 : _____

수험 번호 : _____

홀수형

1

- 수험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 문제지로,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로 응시해야 합니다. 문제지가 자신에게 맞는 문형인지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00~10:30 (90분)입니다.

1. 밑줄 친 낱말이 바르게 쓰인 것은?

- ① 철수는 덩벙대서 능히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 ② 그는 위낙 침착한 사람이지만 그날은 그렇지 못했다.
- ③ 어느 때와 달리 김 과장은 오늘 30분 빨리 출근했다.
- ④ 무차별 총격 사건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 ⑤ 경찰이 경찰차로 학생들을 고사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

2. 어법상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가게 주인은 이 물건을 저 물건보다 세 배 이상 싼 값으로 팔 예정이다.
- ② 도서관은 수천 권의 서적과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 ③ 나 역시 빠른 속도로 주위섬기는 그의 말을 쫓아가느라 점심은 먹는 중 마는 중 했다.
- ④ 현대는 과거와는 달리 개인이 지닌 정보량과 정보 활용 능력이 사회적 계층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회이다.
- ⑤ 미국은 국무장관의 방북을 연기해 달라는 평양 측의 요청을 묵살하고, 북측 대표단이 출발하기 하루 앞서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었다.

[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런 일에 요란 떠는 것도 유행을 타긴 하지만 이런 실속 없는 것을 시골에까지 돌릴 것은 뭔가 하며 이번에는 수건을 펴 보다가 선호는 그만 낮이 화끈해지고 말았다.

‘동해 피혁 주식회사 김복만 사장. 귀향 기념 197× 중추절 POKMAN KIM.’

“허허, 요새 사장 되면 거동이 이렇게 요란한가?”

“누가 이쁘다고 해서 이 꼴이여? 이쁘잖은 며느리 달밤에 샷샷 쓰고 나온다더니, 허허 잔내비 판스 하는 걸 보제. 눈꼴 시려 못 봐 주겠네.”

달중이와 만득이가 한참 복만이 악매에 서릿발이 켜.

“유치하기는 해도 아직 ㉠ 순진한 촌티가 남아 있는 게 나는 그렇게 밍잡은걸.”

선구가 능갈을 치고 나섰다.

“㉡ 가재는 게 편이더라고 하기가 자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 패거리였으니까.”

“가만있자. 이럴 것이 아니라 있는 술에 복만이라도 오라고 해서 같이 마시세.”

“㉢ 그런 밥맛없는 새끼하고 같이 술을 마셔? 그 새끼 보기만 해도 작년 추석에 먹은 송편이 거꾸로 기어 나올라고 허는다.”

“이 사람아, 그러는 것 아녀. 선호야 가서 말이다, 내가 우리 집에서 한잔 하게 오라더라고 데리고 와!”

“올까 모르겠소, 옛날 복만이가 아닌디.”

“가 봐, 내가 오란다면 틀림없이 올 거야.”

선호는 떠름한 표정이었으나 형의 말이라 마지못해 엉덩이를 일으켰다. 선구는 사립문께 나가는 선호를 다시 불러 세웠다.

“지켜 섰다가 같이 와야 해! 꼭 데리고 오란 말이야. 어디 이장 능력 한번 보자.”

달중이와 만득이는 마뜩찮은 표정이었으나 더 참견하지 않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복만이가 본색이야 어디 나쁜 놈인가? 전에 굶혀 살던 뒤라 지금도 마음이 ㉣ 굽찼데다가 서로 오래 말이 막히니까 좋잖은 감정이 쌓인 거야. 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 양 명절에 집에 온다 하더라도 부모 뵙고 성묘하고 나면 아까 달중이 말마따나 금방 똥 달아 부칠 궁리뿐이지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실 여유가 없더라고. 자네들하고 일 년 만에나 어찌다가는 이 년 만에 한 번씩 만나면서도 길거리에서 고개나 한 번 까딱하고 헤어지니 사이가 뜰 밖에 더 있던가? 그러나 저 밑바닥에 있는 옛정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 이려고 앉은게 다시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는가 말이야. 복만이하고도 술 한잔 나누면서 한번 웃고 나면 막혔던 감정이 여름 소나기에 수채구멍 터지듯 할 테니 두고 봐.”

“고향 배반하기로는 ㉤ 한속이라 싸고도는 가락이 그럴싸하구먼, 잔이나 받아.”

“하하, 아까 복만이가 내 책보나 들고 다녔다는 얘기는 억지고 우리 동네서야 나하고 복만이 사이만한 ㉥ 옴살이 있었나. 하여간 기왕 역성든 김에 말인데 지나 내나 이 송악한 산골에서 나서 산골 너구리 사촌으로 자란 놈이 ㉦ 진다 난다 하는 놈들만 몰려 사는 서울 바닥에 부비고 들어 그만한 돈을 잡았다면 무조건 알아줘야 해. 기고 나는 재주를 지너도 그냥 한두 가지 지니고서야 역대토록 돈을 모으기가 쉽겠나? 그런데 아무 재주도 없는 놈이 그렇게 돈을 모은 비결이 뭘 줄 알아? 제간 놈이 유별난 셈속을 타고났을 까닭도 없고 특별하게 다른 재주를 타고났을 까닭도 없어. 재주는 딱 한 가지, 손에 돈이 들어왔다 하면 부라퀴같이 그저 오그라 쥐는 재주, 이것 하나뿐이라고. 한 닢 쥐면 손에서 비지땀이 솟고 두 닢 쥐면 뽀드득 소리가 나게 그저 거머쥐는 재주, 이것이야. 내가 곁에서 보든 안했지만 복만이 속이라면 볼 본 만치나 환해.”

선구는 제 물에 말이 물 쏟아지듯 했다.

“그럴 때 아침저녁 끼니를 제 끼니 찾아 먹었겠어. 국 따로 밥 따로 밥상 구색을 제대로 갖춰 먹었겠어. 외입 나가 돈 벌었다면 어디 가서 권 없는 물외발 녀걸이하듯 ㉧ 결태질하는 줄 알 제마는 다 뻘다귀 곰 곤 돈이라구.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고 그저 남 잘 때 안 자고 먹을 때 안 먹고 부지런히 나대고 아껴서 번 돈이면 그만큼 알아줘야 한다구.”

선구는 제 물에 말이 너무 ㉨ 오도깝스럽다 싶었던지 조금 멧쩍게 웃으며 만득이한테로 잔을 넘겼다.

“그거야 누가 아니래나? 부자 하나가 나려면 옛말에는 세 동네가 망한다고 했는데, 그럴 쟈비가 못 되기도 하제마는 남의 것 넘보잖고 제 손으로 번 것만도 장한 일이긴 하지.”

만득이가 술잔을 꿀꺽하며 말했다.

“그런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소리는 그것이 벌기는 어떻게 벌었든 쓰기를 쓸 데다 씬속 있게 쓰라는 소린디 저 아래 의병비 같은 건 오죽이나 생색나는 일이란 말이야.”

달중이 말에 다시 만득이가 나섰다.

“따지고 보면 그런 일을 어느 부자 한 놈 돈을 넘보고 생각하는 우리덜 정신이 침부터 뉘조가리가 빠진 것 같어. 설사, 끼니를 몇 끼니 거르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덜 키우고 사는 놈덜이 여적지 저기다 비석 하나 못 세웠으니 내남적없이 입이 백 개라도 할 말 없게 됐어. 짝 하면 입맛이더라고 비석이 꼭 거창해야 한다는 법도 없는 담에는 찬물 떠 놓고 절을 해도 제 정성인게 명색만이라도 갖추는 것인디, 우리 선대들부터 괜연스리 거창하게만 생각하다가 결국 이렇게 손주 턱에 수염이 나 버렸잖어. 이제라도 못난 조상 탓 듣지 않으려면 이번 세안에는 조리 장수 체겟돈을 내서라도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구.”

그때 문이 열렸다. 복만이였다.

“다들 여기 모였네.”

복만이는 선구 혼자 있을 줄 알았다가 얼핏 당황하는 눈치였다.

“복만이 오랜만이네.”

“잘 있었어?”

복만이는 만득이 손을 잡아 흔들고 나서 달중이 손을 잡아 역시 혼연스럽게 흔들었다. 도시에서 굴러먹던 너름새가 있구나 싶게 혼연스러웠다.

“그런게, 아까 그 ㉠ 고장난 차 타고 오던 것이 자네였던가? 하하.”

“망할 작자.”

달중이의 능청에 복만이는 지레 주먹질 시늉을 했다.

“이 사람아. 그런게 기왕 차를 사서 타고 댕길라면 쪼깐 쓸 만한 차를 타고 댕게사제. 자네같이 돈 많은 사람이 그런 헛털 뱅이 차를 좇어 타고 댕길 중 누가 알았을 것이어? 하하.”

모두 흐들갑스럽게 웃었다.

- 송기숙, 재수 없는 금의환향 -

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7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상실감을 그리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관계와 현재 심정,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 등을 자연스럽게 알려 주고 있다.
- ③ 유년기를 함께 한 인물들의 ‘저 밑바닥에 있는 옛정’에 호소하여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 ④ ‘의병비’ 건립 건을 통해 갈등의 한 요인을 제시하는 한편, 인물들의 경제적 형편을 알 수 있게 한다.
- ⑤ 고유어와 사투리를 풍부하게 구사하고, 상황에 맞는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4. ㉠~㉤과 함축적인 의미가 유사한 것을 <보기>의 ㉡~㉥에서 골라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는 웬지 잘 빗어진 향아리보다
 좀 실수를 한 듯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아내를 따라와 옹기를 고르면서
 늘 느끼는 일이지만
 품소 질그릇을 굽는다는
 ㉡ 옹기점 주인의 모습에도
 ㉢ 어딘가 좀 빈 데가 있어
 그것이 그렇게 넉넉해 보였다
 내가 골라 놓은 질그릇을 보고
 ㉣ 아내는 곧잘 화를 내지만
 뒷전을 돌아보면
 그가 그냥 투박하게 웃고 섰다
 가끔 생각해 보곤 하는데
 나는 ㉤ 어딘가 좀 모자라는 놈인가 싶다
 질그릇 하나를 고르는 데도
 실수한 것보다는 차라리
 ㉥ 실패한 것을 택하니

- 정희성, 옹기전에서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5.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달중을 따라 복만을 욕하다가 선구의 말만 듣고 다시 마음을 바꾸는 데서, 만득의 소신 없는 성격이 드러난다.
- ② 복만을 신랄하게 비판했으면서도 직접 대면해서는 인사말로 농담을 던지는 데서, 달중의 능청스러운 면모를 볼 수 있다.
- ③ 복만이가 보낸 수건을 보고 낮 뜨거워하고 형 선구의 심부름에 떠름해 하는 데서 보듯, 선호는 복만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 ④ 좌중의 의견과 달리 복만을 부르게 한 뒤 복만에 대한 제 생각을 장황하게 풀어내는 데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선구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 ⑤ 예상치 않은 동석자들이 있어서 잠시 당황하지만 곧 너름새 있게 넘어가는 데서, 복만이 서울 생활을 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음을 알 수 있다.

6. ㉡~㉤의 뜻을 잘못 풀이한 것은?

- ① ㉡ 굽죄다: 떳떳하지 못하여 기를 펴지 못하다.
- ② ㉢ 한속: 같은 셈속.
- ③ ㉣ 움살: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
- ④ ㉤ 결태질: 염치나 체면을 차리지 않고 구걸하는 것.
- ⑤ ㉥ 오도갑스럽다: 경망하게 덤비는 태도가 있다.

[7~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 고급 주택가(저녁)

비탈진 길을 오르는 미끈한 최신형 세단 1대.

#3. 차 안(저녁)

달리는 차 안 한쪽 구석에 지쳐 푹 파묻히듯 기대앉은 윤.

㉠ 창 밖으로 지나가는 대도회의 저녁 거리 풍경.

운전수 ㉡* 언제 돌아오시나요?

윤 (다른 것을 생각하다가 문득 정신이 돌아온 듯) 이쪽 형편에 달렸지. 전보 받는 대루 올라오게 될…… (얼른 말을 바꿔) 한 일주일 쉬게 될 걸세.

운전수 ㉢ 그러면 전 그동안 좀 시간을 얻겠네요. 저의 집 여편네가 어제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또 딸 쌍둥이랍니다. 그저 죽어라 죽어라 합니다.

윤 (무뚝뚝하게)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나?

운전수 (머리를 긁으며) 아니요! 그게 뭐 자랑거리 라구…….

윤 의논해 보게! 혹시 아나? 도움이 될지…….

#4. 윤의 방 안(저녁)

여행용 케이스에 화사한 남성용 의류와 세면도구 등이 차곡차곡 담겨진다. 챙겨 넣는 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담겨지곤 하던 중 액자에 든 남녀 사진 한 틀. (인서트**) ㉣ 의젓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아내와 윤의 나란한 사진.

방에 붙은 욕실에서 나오는 윤, 로우브를 벗는다.

넥타이를 매어 주는 아내의 손에 맡기고 목을 길게 하고 있는 윤의 상반신.

윤 하필 무진에서 쉬어야 하나? 원…….

아내 ㉤ 당신 요즘 안색 보면 제가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아요. 어머님 성묘도 하실 겸 좋지 않아요?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주총회 작전에는 아버님 옆에 제가 꼭 붙어서 다녀야 할 것 같으니……. 푹 쉬시다 오시든 대 회생계약주식 회사 전무이사님 자리가 기다리구 있을 테구…….

#5. 같은 방 창밖 풍경(저녁)

가로등이 일제히 켜지고 집집마다 불이 켜진 아름다운 저녁 풍경.

#6. 이모집 마루(밤)

(회상) (과거)

처마 끝에 내다 걸은 희미한 전등에 하루살이와 불나방들이 모인다.

— C.U.*** —

#7. 침대차 안(밤)

㉦ 많은 하루살이가 들어가 죽은 희미한 전등불.

— C.U. —

후덥지근한 침대차 안.

유리창에 비치는 윤의 얼굴. 창밖으로 도회의 불빛이 스쳐 지나간다.

이윽고 불빛 드물어지고 어둠.

㉧ 달리는 기차의 굉음 소리.

장인 ㉨ 비행기로 가서 바꿔 타구 가든 빠르긴 허것지만 항공 여행이란 위험한 것이니 기차루 가두룩 허게 (명령조)!

윤 ㉩ 네, 아무렇게나 좋습니다.

#8. ○○시 역(이른 아침)

윤, 대합실을 나오다가 미친 여자를 본다. 나이롱 치마저고리에 핸드백과 파라솔 등 제법 진한 화장의 멋쟁이다.

구두닦이들, 그리고 아이스케키 장수 아이들이 어울려 여자 뒤를 줄줄 따르고 있다.

소리1 ㉪ 공부를 많이 해서 돌아 버렸디아.

소리2 ㉫ 아녀, 남자한테서 채여서여.

소리3 ㉬ 저 여자 미국 말도 참 잘 한다. 물어 볼까?

구두닦이, 집적거리면 비명을 지르는 미친 여자.

#9. 바닷가 집 방 안(밤)

(과거)

비명 지르며 악몽에서 깨어나는 윤.

식은땀을 흘린다. 방문을 열면 바닷가.

파도들이 밀려와서 밀려가고(시간이 공허하게 흐른다).

#10. 이모집 건너방(낮)

(과거)

골방 문 벌럭 열리며 비명을 지르고 뛰어 나오는 윤. 어머니가 어이없는 얼굴로 본다.

윤 더 이상 못 숨어 있겠어요! 미칠 것 같단 말예요. 미치드라도 일선에 나가서 미치겠어요. 이대로 내가 미치거든 ㉭ 내 일기책 첫 장에 적어 놓은 이유들 때문일 터이니 그걸 참고해서 치료해 보세요!

웃고름에 눈물 닦는 어머니.

돌아앉아 책상에 머리를 파묻고 흐느끼는 윤.

#11. 시골 자동차길(낮)

도망하듯이 시골의 자갈길을 달리고 있는 버스.

#12. 버스 안(낮)

버스 차창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이 주마등 같다.

가로수와 논, 밭 등을 뒤로 훑훑 보낸다.

산 틈으로 지저분한 바다가 보인다.

#13. 이정비 근처(낮)

이정비 : 무진 10킬로미터 : Mujin 10km

㉮ 버스 고장으로 사람들이 내린다.

이정비를 보고 있는 윤이 이정비 뿌리를 발로 차 본다.

* ㉯ : 효과음.

** 인서트: 삽입 화면.

*** C.U.: 클로즈 업.

- 김승욱, 안개 -

7. 위 글의 표현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효과음을 활용하여 화면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
- ② 인서트를 통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들을 골고루 카메라로 포착하여 그들의 표정이 드러나도록 지시하고 있다.
- ④ 시간과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충실하게 제시하여 감상자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 ⑤ 피사체를 확대하여 화면 전면에 부각시키는 수법으로 관객들이 대상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8. 위 글의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2에서 #3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면은 근경에서 원경으로 바뀌어야 한다.
- ② #4에서 #5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카메라는 방 안에 있는 아내의 시선을 표현해야 한다.
- ③ #6에서 #7로의 전환은 날벌레와 기차라는 공통 매개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④ #8~#10에서 장면을 전환시키는 공통 매개 요소는 비명이다.
- ⑤ #10에서 카메라의 위치는 방 안에서 시작하여 방 밖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9. ㉠~㉣ 중, <보기>의 '회의'를 가장 잘 표상하고 있는 것은?

<보 기>

좁고 답답한 무진을 벗어나고 싶어 하던 윤은 도회로 나와 대 제약회사 경영자의 사위가 된다. 하지만 윤은 화려한 도회의 삶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윤택함을 얻는 대신, 영혼의 자유를 잃고 세속적인 가치들과 타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점차 윤은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은 동시에 여러 개의 스토리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스토리를 **주(主) 스토리**라고 하는데, 주 스토리는 부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들과 엮히기 마련이다.

스토리를 쓰는 것은 일련의 선택을 하는 일이다. 어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이런저런 요소들을 취하고** 다른 요소들은 스토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거한다. 시나리오에서 서사란 스토리가 전개되는 방식이며, **외화면***과 **생략**을 사용하여 정보를 점진적으로 보여 주거나 감추는 방법이 이용된다.

* 외화면: off screen. 화면 바깥에서 벌어지는 사건.

- ① 위 글에서 '주 스토리'는 윤이 집을 떠나 무진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
- ② #3은 윤이 중요한 일을 처리할 결정권이 없다는 '정보를 점진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로군.'
- ③ #3 다음에 윤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없는 것은 '스토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일 거야.
- ④ '어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이런저런 요소들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면, #8에서 '미친 여자'를 등장시킨 것은 #10에서 '미칠 것 같'은 심정과 연관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어.
- ⑤ #11에서 #13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12를 '생략'하지 않은 것은, 부수적인 스토리를 보여 주기 위해서일 거야.

[11~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7세기에 수립된 뉴턴의 체계에 따르면 물리적 실재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과 그 공간에서 움직이는 질점(質點), 질점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리고 물리적 사건은 공간상에서 질점이 만유인력과 일정한 운동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운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체계에서는 물리적 사건을 다룰 때 물체로부터 모든 특성들을 제거하고 질량과 병진 운동만을 고려하며, 거기에 입자 사이의 원격 작용, 곧 빈 공간을 뛰어넘어 직선을 따라 미치는 힘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구도는 입자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입자론적이고, 물질의 기계적 작동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역학적이다.

이 체계의 가장 불만스러운 측면은 빛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었다. 뉴턴은 그의 체계에 따라 빛도 입자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빛이 물체에 흡수될 때 빛 입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었다. 더욱이 질량이 있는 물질과 질량이 없는 빛을 설명하기 위해 서로 다른 종류의 두 가지 입자를 가정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불만스러웠다. 나중에 이전의 입자들과는 또 다른 성질의 전기 입자가 제3의 종류로 추가되자 논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전기 입자는 질량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빛과 달리 서로를 밀치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는 특이한 행동 양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 라플라스 학파는 뉴턴주의의 가치를 내걸고 뉴턴의 중력 이론을 더욱 확장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자연 현상을 특정한 성질만 갖는 질량 없는 입자나 원격 작용에 의해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뉴턴주의에 대한 도전은 19세기 초에 빛의 입자 이론에 대립하여 빛의 파동 이론이 부정할 수 없는 관찰 사실을 통해 확증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파동 이론은 빛을 입자가 아니라 공간을 채우는 매질인 에테르의 진동으로 설명하였다. 그 후 에테르는 고유한 역학적 특성을 갖는 연속체로 상정되었다. 전기와 관련한 입자론적 해석의 폐기는 패러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수행한 실험에서 발견한 전자기적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힘의 전달 방식으로 역선(力線)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역선은 유체의 흐름과 같이 곡선을 그리기도 하고 서로 밀치기도 하므로, 역선이 존재하는 공간인 장(場)은 연속적인 매질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물리적 실재의 개념은 입자론적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역학적이었다.

패러데이의 독창적인 개념을 수학화할 수 있음을 보인 인물이 맥스웰이다. 그는 공간을 채우는 매질이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어 전자기적 영향력이 전파되는지를 수학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는 당시에 전자기 현상에 대해 알려진 것 대부분을 몇 개의 ‘맥스웰 방정식’의 체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맥스웰 방정식은 서로 결합되었을 때, 광속으로 공간을 퍼져 나가는 전자기적 파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측해 줌으로써 빛이 일종의 전자기파라는 발견에 이르게 하였다. 처음에 맥스웰은 이 방정식들을 구축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공간을 채우는 연속체의 역학적 모형들을 동원하였지만, 방정식들만으로 관련된 모든 현상을 기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실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되자 그 모형들을 폐기했다. 이로써 그의 방정식이 표현하는 전자기장은 어떤 다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궁극적인 실재가 되었다. 이렇게 맥스웰의 전자기학은 역학적 함축을 벗어 버렸고, 연속적 장 개념은 물리적 실재를 기술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이후 물리학에 근본적인 변혁을 유발하는 토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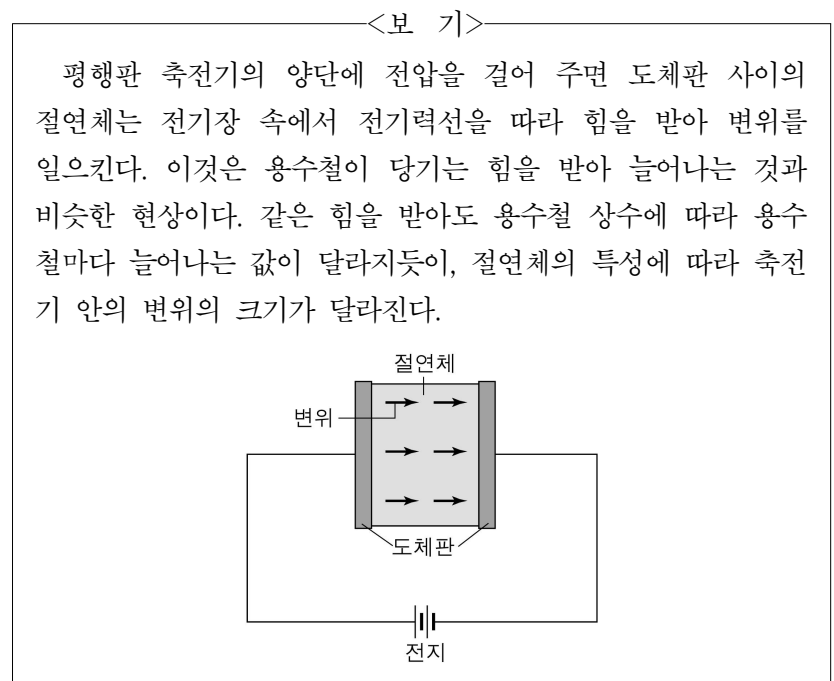
1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뉴턴의 공간은 비어 있으나 맥스웰의 공간은 매질로 채워져 있다.
- ② 뉴턴의 빛 입자 개념은 빛의 매질로서의 에테르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
- ③ 뉴턴은 원격 작용에 의해, 패러데이는 역선에 의해 힘이 전달된다고 보았다.
- ④ 맥스웰에 따르면, 세계는 연속적인 장 속에서 운동하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 ⑤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기장을 기술했을 뿐 아니라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견하였다.

12. ㉠의 입장에서 자연 현상을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서로 다른 부호의 전하를 가진 전기 입자들은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으로 서로 잡아당긴다.
- ②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 공간의 매질이 힘을 받으면서 도선 옆의 나침반이 편향된다.
- ③ 고온인 물체에서 밀려나온 열 입자인 칼로리가 저온인 물체로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된다.
- ④ 달의 무게 중심과 지구의 무게 중심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 달의 공전이 일어난다.
- ⑤ 화학 반응에서는 원자들 사이의 인력의 차이에 의해 결합과 분해가 결정된다.

13. <보기>는 19세기에 저술된 책에서 가져온 자료이다. 전기 현상에 관한 위 글의 관점들을 참고하여 <보기>의 설명을 평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체판을 전기 입자를 전달하는 연속적 매질로 간주하였다.
- ② 절연체의 작용을 연속적 매질의 역학적 모형으로 해석하였다.
- ③ 절연체를 도체판 사이의 원격 작용을 전달하는 매질로 간주하였다.
- ④ 전자기적 영향력이 빈 공간 속에서 역선을 따라 전달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⑤ 원격 작용인 전기력에 질점의 집합체인 절연체가 반응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14~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면역의 메커니즘은 몇몇 중요한 역사적 관찰과 실험을 통해 정립되었다. 예컨대 특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돌본 사람 또는 그 시신을 처리하던 사람이 그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밝혀져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중엽까지는 면역의 특성과 메커니즘 이해에 필요한 효과적인 실험 방법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다. 무엇보다도 병원성 균주나 인위적으로 면역을 유발하는 실험적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다. 19세기 말 병원성 균주의 발견과 파스퇴르의 면역화 방법의 발견은 면역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파스퇴르는 ㉠ 오랜 기간 배양액 속에 방치되어 병원성이 약화된 조류 콜레라균을 수탉들에 주사하였다. 그러자 닭들은 콜레라 증상을 보였지만 대부분 죽지 않았으며, 회복한 후에는 병원성이 강한 콜레라균을 주입하여도 질환을 앓지 않아 콜레라균에 대한 면역성을 보였다. 파스퇴르의 실험은 개체 내에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병원균이라는 것을 밝혔지만, 이 면역 반응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개체 내에 들어온 병원균에 대한 면역에서는 각각의 병원균이 표현하는 특정한 항원에 대한 항체 생성과 그것의 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베링은 디프테리아나 파상풍 같은 병에 대한 개체의 면역은 병원균이 생성하는 독소를 중화하는 물질, 즉 항체에 의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항체와 면역 반응을 그는 각각 항독소와 항독소 면역이라 명명하였고, 항독소가 그 기능을 유지한 채 다른 동물로 접종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에 따라 19세기 말에는 ㉡ 말의 혈액으로부터 추출한 항디프테리아 혈청을 주사하여 디프테리아 환자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하게 되었다.

항체는 독소를 중화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파이퍼는 ㉢ 약화된 비브리오 콜레라균을 접종하여 면역화된 쥐의 복강에 콜레라균을 주입하면 균이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면역성이 없는 쥐의 복강에 콜레라균을 주입할 경우 그 쥐는 감염되어 죽지만, ㉣ 면역화된 쥐의 혈액에서 추출한 면역 혈청과 함께 주입하면 콜레라균이 죽는다는 사실도 관찰하였다. 파이퍼의 실험에서 면역 혈청은 콜레라균이 생성한 독소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다. 그는 이러한 항체와 면역을 각각 용균성(bacteriolytic) 항체와 용균성 면역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실험에서 용균성 면역 반응은 체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용균성 면역 반응에 항체와 연관되어 작용하는 또 다른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보르데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밝혀졌다. 보르데는 파이퍼의 실험과 달리 콜레라균에 대한 신선한 면역 혈청은 체외에서도 용균성 면역 반응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 장기간 보존된 혈청 또는 짧은 시간 동안 56℃에 노출된 면역 혈청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지만, 이때에도 콜레라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는 정상 동물의 신선한 혈청을 소량만 첨가하면 면역 반응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보르데는 콜레라균에 대한 용균성 면역 반응에는 두 가지 물질의 조화로운 작용이 필요함을 밝혔다. 하나는 내열성을 지니고, 면역성을 가진 동물에서 생성되며, 혈청 내에 존재하는 항체이다. 다른 하나는 열이나 장기간 보존에 견디지 못하고, 정상 동물에 이미 존재하며, 면역 반응을 통해 양이 증가하지 않는 물질이다. 후자는 현재 보체(complement)란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14. 위 글의 관찰 및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한 질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처리하던 사람의 경우에 그 질병의 원인균에 대한 감염이 일어났을 것이다.
- ② 파스퇴르의 실험으로는 수탉이 보인 면역 반응이 항독소 면역인지 용균성 면역인지 알 수 없다.
- ③ 베링은 디프테리아 항체가 독소를 중화하여 개체가 병에 대한 저항성을 얻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 ④ 파이퍼의 실험에서 면역이 없는 쥐에 면역 혈청과 함께 주입된 균은 주입된 혈청 속의 항체에 의하여 면역 반응을 유발하였다.
- ⑤ 보르데의 실험에서 56℃에 노출된 혈청은 항체가 파괴되어, 면역 반응을 위해서는 신선한 혈청의 항체가 필요하였다.

1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 1>에 대해 <보기 2>와 같이 설명할 때, <보기 2>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태아적아구증은 Rh⁻ 혈액형의 엄마가 Rh⁺ 혈액형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 생길 수 있다. 혈구에 Rh 인자가 없는 엄마가 Rh 인자를 가진 아이를 임신하면 엄마의 혈액 속에 Rh 인자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데, 이 항체가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게 들어가면 태아의 혈구가 파괴된다.

Rh⁻ 혈액형의 엄마가 Rh⁺ 혈액형의 아이를 처음 임신한 경우에는 태아적아구증이 생기지 않지만, 두 번째 임신한 경우에는 3%, 세 번째 임신한 경우에는 10%의 확률로 질병이 발생한다.

<보기 2>

ㄱ. 엄마의 혈액으로부터 태아로 전해진 항체는 일종의 용균성 면역 반응을 보였다.

ㄴ. 반복된 임신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률 증가는 태아의 보체 형성의 증가가 원인이다.

ㄷ. 파스퇴르의 실험에서 사용된 조류 콜레라균처럼, 태아 혈구의 Rh 인자는 엄마에게 항원으로 인식되었다.

ㄹ. Rh⁻ 혈액형의 엄마가 임신 전에 Rh⁺ 혈액에 노출이 된 경험이 있다면 첫 번째 임신의 경우에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6. <보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에서 '수동 면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획득 면역은 면역화 방법에 따라 개체 내의 면역 세포가 항원을 인식하여 면역을 유발하는 능동 면역과, 다른 개체에서 생성된 항체를 주입하여 면역을 유발하는 수동 면역으로 나뉜다.

- ① ㉠, ㉡ ② ㉠, ㉢ ③ ㉠, ㉡, ㉣
- ④ ㉡ ⑤ ㉡, ㉣

[17~1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격권은 권리자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에 관한 권리로서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보도 목적 또는 사적으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이용은 표현 자유권 내지 알 권리와 관련하여 어느 수준까지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해서 상품을 선전하거나 혹은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도 보도 목적이나 사적인 이용과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다. 유명인의 성명, 초상, 기타 주체성을 표시하는 상징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면 상품 판매와 영업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인격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유명인의 성명, 초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 그러므로 유명인의 성명, 초상, 기타 주체성을 표시하는 상징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금전적 가치를 권리로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권리를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한다. 다시 말해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성명이나 초상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적 측면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미국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이 소개된 이후 이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그 정당성을 긍정하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근거가 되는 명문의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우선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자연적 재산권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이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명문의 규정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찬성론자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개인들이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유익하다고 한다. 이외에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는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이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유명인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우연히 유명성을 얻은 자에 대해 지나친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더 나아가 반대론자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초상권이나 성명권과 같은 인격권의 영역에서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이 궁극적으로는 헌법상의 표현 자유권에 대한 억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반대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찬반의 논란 속에서도,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통해 쌓아 온 명성으로 재산적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권리자가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퍼블리시티권 역시 인격권과 동일하게 인격을 상징하는 성명이나 초상

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성명이나 초상의 이용을 권리 주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재산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퍼블리시티권의 혼합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인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17. 위 글을 바탕으로 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 ① 퍼블리시티권은 생존 중에 성명, 초상 등이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사후에도 존속되는 권리이다.
- ② 신문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무단으로 신문에 게재하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 ③ 유명인의 성명, 초상이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 실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 ④ 퍼블리시티권은 양도, 상속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격권적 성격을, 주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적 성격을 지닌다.
- ⑤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확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18. ㉠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반드시 참이어야 하는 것은?

- ① 권리자가 상품을 후원한다는 사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신뢰가 보호될 것이다.
- ② 소비자들은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어떤 후원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성향이 불식될 것이다.
- ③ 권리자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높아지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경우 이용자 수익의 사회 환원 효과가 제고될 것이다.
- ④ 이용자는 상품의 질과 무관하게 권리자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는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권리자가 상품의 질이 높은 수준이 되도록 규제할 것이다.
- ⑤ 권리자는 이용자의 상품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으로써 권리자와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 퍼블리시티권 보호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ㄱ. 현대 사회에서 유명인의 명성은 우연보다는 본인의 의식적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명인은 명성을 얻기 위하여 시간, 자금, 기술 등을 투자하고 그 결과 명성을 얻게 된다. 노력에 대한 결과물은 그 노력을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 ㄴ. 인격권은 성명, 초상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명인의 성명, 초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어렵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 ㄷ. 유명인의 성명, 초상을 이용한 표현 행위와 퍼블리시티권이 충돌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 퍼블리시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에 따라서 혹서 또는 저온의 여름이 출현하고, 겨울의 기온과 강설량에도 큰 편차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계절 기후의 특성을 미리 예측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수일 이내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예보의 정확도에 비하여, 예측 대상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하는 장기 기후 예측의 정확도는 많이 떨어진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장기 기후 변화는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해수 온도의 장기적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해양의 열용량은 육지보다 훨씬 크며, 대기의 열용량의 사백 배에 달한다. 난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북유럽은 같은 위도대에 위치하면서 난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평균 기온이 훨씬 높고 일교차와 연교차가 작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해류가

기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기후 예측의 대상 기간이 길수록 해양의 상태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수 표면의 온도인데, 표면을 포함하여 해수의 온도는 해류 운동에 의해 결정된다. 문제는 해류 운동이 매우 불규칙하여 해수 온도의 공간 분포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해류 운동에는 다양한 주기를 가진 여러 인자들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어떤 인자는 100년 이상의 주기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들이 서로 간섭하여 상승 혹은 상쇄 효과를 내며 해류 운동의 불규칙성을 낳는다.

해양 수중 온도의 관측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도 그 이유가 된다. 대기와 달리 해수는 전자기파를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수중에서는 전자기파를 통한 원거리 정보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기상 관측에서 사용하는 라디오존데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직접 배를 타고 현장에 나가 관측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난점이 있다. 그래서 수중 온도 분포 자료가 기후 예측에 매우 중요한데도 실효성이 있는 자료를 기후 예측 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해양-대기의 상호 작용 메커니즘에 관한 이해 부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바람은 해수 온도의 공간 분포 차이로 발생하고, 발생한 바람은 해류를 만들어 해수 온도 분포를 바꾼다. 즉, 바람과 해류는 서로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 인과적 상호 작용을 한다. 그런데 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관계가 명료하게 규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세계 각지에 이상 기후를 발생시키는 엘니뇨현상의 경우, 그것을 유발하는 해류와 바람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번 엘니뇨현상이 언제 발생할지를 제대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기후 시스템이 ㉡ 카오스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기 기후 예측을 어렵게 한다. 카오스적 성질이란 초기 조건의 미미한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초기에는 같은 것처럼 보였던 상태가 나중에는 전혀 다른 상태로 변해 가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성질을 갖는 시스템은 시간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똑같은 상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후 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기상 관측 자료에는 필연적으로 오차가 포함되기에, 예측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보 결과는 사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20. 위 글로 미루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진술은?

- ① 해수의 표면 온도가 높은 해역이 낮은 해역보다 해수의 열 저장량도 많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이상 고온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
- ③ 엘니뇨현상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측된다면 장기 기후 예측이 곤란하다는 주장은 약화된다.
- ④ 수중에서 수집한 정보를 지상의 관측소까지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법이 개발된다면 장기 기후 예측의 어려움이 줄어든다.
- ⑤ 장기 기후 예측은 초기 조건을 바꾸어 가면서 반복 계산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평균하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는 기후의 카오스적 성질에서 오는 문제를 줄이려는 의도이다.

21. <보기>의 현상들을 인과 유형에 따라 ㉠와 ㉡로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열섬 현상이 발생하여 도시의 기온이 상승하면 냉방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서 폐열의 배출이 많아지고, 이 폐열이 도시 온도를 더욱 높인다.

㉡. 해상에서 공기의 냉각과 습윤화로 해무가 발생하면 이 해무가 태양 복사를 차단하고 야간 복사 냉각을 증가시키는데, 그 결과 공기의 냉각과 습윤화가 심화되면서 더 많은 해무가 발생한다.

㉢. 지구 온난화로 열대 해양의 수증기 증발이 증가하였을 때, 증발한 수증기가 그 지역 기상 조건의 차이에 따라 태풍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 태풍 발생이 증가하고, 상공에서 응결되어 열을 방출하면 태풍 발생이 감소한다.

㉣.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아마존 우림의 식물들이 기공을 여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결과 우림의 증산량(蒸散量)이 감소하여 강우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우림의 면적이 줄어들면 광합성 양의 감소에 따라 다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

- | | |
|-------------|-----------|
| ㉠ 인과적 상호 작용 | ㉡ 카오스적 성질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22. <보기>는 지구와 화성의 특성에 대한 정보이다. 위 글과 <보기>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화성에 대하여 추정한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보 기>

| | 지구 | 화성 |
|------------------------|--|--|
| 지상 기압 | 1,013 hPa | 8 hPa |
| 대기 구성 주성분 기체 | N ₂ 78% O ₂ 21% | CO ₂ 95% N ₂ 2% |
| 표면 상태 | 토양 32% 해수면 68% | 토양 100% 해수면 0% |
| 표면 온도 범위 | -60℃ ~ 30℃ | -140℃ ~ 20℃ |
| 자전 주기 | 24.0 시간 | 24.6 시간 |
| 공전 주기 | 1.0 년 | 1.9 년 |
| 공전 궤도면에 대한 자전축의 기울기 | 66.5° | 64.8° |

- ① 행성 표면의 열적 조건이 장기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지구보다 클 것이다.
- ② 동일 위도대에서 지역 간의 연평균 기온 차이는 지구보다 작을 것이다.
- ③ 대기 온도 관측 자료의 전송에 전자기파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 ④ 장기 기후 예측은 지구보다 어려울 것이다.
- ⑤ 기온의 일교차는 지구보다 작을 것이다.

[23~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를 인간의 과거에 대한 기억 혹은 이야기라고 폭넓게 정의하면, 그런 의미에서의 역사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 이전에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트로이 전쟁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다룬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것은 ‘엄밀한 의미의 역사’라는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시인은 문자 이전의 사회에서 축적된 집단 기억의 신화적 묘상, 즉 신으로부터의 영감에 ‘사로잡혀’ 노래하기 때문이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시인 호메로스는 단지 뮤즈 여신들과 아폴론이 준 영감, 즉 기억의 중계자일 따름이다.

엄밀한 의미의 역사가 출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그 ‘신들린 상태’, 즉 집단 기억으로부터의 해방이며, 그 결정적 계기는 이질적인 문화권과의 접촉이다. 그 결과 비로소 자기가 속한 집단이 지닌 기억 혹은 세계관을 다른 것과 비교하고 수정하는 개인이 나타난다. 이 바탕 위에서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서술되었다. 역사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historia*의 의미가 ‘목격자의 증언’에서 ‘탐구’로 변하게 되는 것도 이 즈음이다. 『역사』는 헤로도토스의 동시대인이 경험한 최대의 사건, 즉 페르시아 전쟁과 그 전쟁의 원인을 탐구하여 기록하였다. 그 점에서 헤로도토스는 역시 전쟁을 주제로 삼은 호메로스와 겨루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호메로스가 집단 기억의 구전으로 남았을 뿐 더 이상 탐구의 여지가 없는 아득한 과거의 일을 소재로 삼았다면, 헤로도토스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기록과 증언을 수집하여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시기의 사건을 다루었다. 9권으로 된 『역사』를 서술하면서 헤로도토스는 1~4권은 전쟁의 배경과 원인을, 5~9권은 전쟁의 과정과 결과를 서술하는 데 할당한다.

헤로도토스는 서술을 위해 기록과 증언을 가리지 않고 수집하였고, 그 중 일부는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확인하지 못했고, 그런 경우 기록과 증언을 불신하거나 비판하기보다 그대로 열거하며 소개했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후세의 역사가들은 『역사』의 서술이 잦은 방담으로 교란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1~4권의 서술에서 작가는 그리스 이외의 세계를 다루며 부단히 풍토와 풍습, 지리, 전설 등을 거론한다. 이런 특성이 나타난 이유는 구체적 정보를 분석하고 추상하는 사유가 미숙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청중을 모아 놓고 작품을 구연하던 당시의 관행 탓이기도 했다. 그는 청중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다양한 소재들을 제공해야 했던 것이다.

한편, 헤로도토스의 뒤를 잇는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후대인들에게 ‘모범적인 역사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투키디데스 역시 자신의 세대가 겪은 사건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주제로 글을 썼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지리적 정보나 각 민족의 풍속 등에 대한 서술로 종종 논점이 분산되던 헤로도토스와 달리, 그는 정치사와 전쟁사에 오롯이 집중했다. 이는 작품 구성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는 8권 분량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전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직접 설명에 제1권을 할애할 뿐, 나머지는 전쟁 자체만을 집중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는 개인적, 시대적 상황 때문에 구연물이 아닌 독서물로 글을 썼으며, 청중의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서술 방법론의 측면에서 그는 자신이 얻은 기록과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만을 정보로 간주하고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증언은 철저히 배제했다. 그리고 얻은 정보들을 자신의 역사 인식과 경험에 의거하여 선별하고, 상충하는 정보들 가운데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만을 독자에게 제공했다. 즉 그는 과거사(過去事)와 그에 대한 정보 사이에 괴리가 있을 경우 자신의 인식으로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책의 서문과 첫머리에서만 잠시 1인칭으로 등장할 뿐, 그 후로는 텍스트 사이로 모습을 감춘다. 다시 말하면 화자는 텍스트 자체가 된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심리적 동기를 분석하고 치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사건을 생생하게 서술하였다. 그 박진감의 효과 때문에 독자는 객관적인 관찰자로 보이는 화자의 권위에 동의하게 되고, 차츰 그 동의는 습성화된다.

이후의 역사학은 헤로도토스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보이며 논점이 집중되어 있는 투키디데스의 서술 방법론을 본받았다. 투키디데스에 대한 후세 역사가들의 호의는 ㉠ “헤로도토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투키디데스를 그리스 최초의 역사가라 부르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라는 베르낭의 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23.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엄밀한 의미의 역사’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서술자의 주관과 경험을 배제한다.
 - ② *historia*의 의미가 변화해 간 것은 현장 확인 및 증언 수집과 관련이 있다.
 - ③ 역사 서술 주체로서의 개인은 다른 문화권의 존재를 인식할 때 나타난다.
 - ④ 호메로스 서사시는 공유된 집단 기억의 신화적 표상에 근거하고 있다.
 - ⑤ 집단 기억의 서술로서의 서사시는 넓은 의미에서 역사라고 부를 수 있다.

24. ㉠에서 ‘유혹’을 느끼는 이유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 |
|---------------|---------------|
| ㉠. 목격자의 증언 수집 | ㉡. 작품 내용의 집중성 |
| ㉢. 정보의 비판적 제어 | ㉣. 당대사 서술의 창안 |
| ㉤. 명료한 분석적 서술 |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25. <보기>는 두 역사가의 작품 기획 의도이다. 위 글의 내용과 연관시켜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할리카르나소스의 헤로도토스가 탐구한 바를 보여 준다. 일어난 일이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뇌리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그리스인과 이민족이 보여 준 위대하고 경이로운 행적이 그 영광을 잃지 않도록, 특히 그들이 서로 싸운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

- 헤로도토스 -

아마 독자들은 전설을 이야기하지 않는 내 작품이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라면 앞으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므로 실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작품이 유익하다고 여길 것이고,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내 역사는 한 번의 구연물이 아니라 영대(永代)의 재산이다.

- 투키디데스 -

- ①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작품의 많은 분량을 배경과 원인 설명에 사용했다.
- ② 헤로도토스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사한 것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③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작품을 읽는 독자층을 정치적, 군사적 사건에 대해 교훈을 기대하는 사람들로 상정했다.
- ④ 투키디데스는 ‘전설’이나 ‘구연물’이라는 말로 헤로도토스의 작품을 암시하며 자신의 작품이 그보다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 ⑤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는 모두 역사가 유사하게 되풀이되므로 중요한 사건은 탐구해서 남겨 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26~2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혹독하고도 긴 경기 침체였다. 공황의 진원지는 미국이었는데, 1929년 말 뉴욕 주식 시장의 주가 대폭락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

당시 미국 사회는 엄청난 경제적 변영과 함께 대량 소비 풍조가 만연했지만, 소득과 부의 불균등이 심화되면서 소비 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었다. 한편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것은 내구 소비재 산업이었다. 그것을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1928년에 이미 미국인 6명 중 1명이 차를 소유했는데, 이는 불균등한 소득 분배를 고려할 때 거의 모든 가구가 차를 구입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였다. 민간 부문의 주택 건설 역시 성장의 동인이었지만 당장은 추가 투자가 필요치 않은 지점에 도달했다. 큰 집을 짓고 한두 대의 차를 가진 미국의 부자들은 무엇을 더 구입할 수 있었을까? 새로운 생산적 투자처를 찾지 못한 그들은 돈을 주식 투기에 쏟아 부었으며, 평범한 농민들까지도 은행 대출을 받아 주식 투기의 열풍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파산이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다. FRB 산하 12개 지역별 중앙은행 이사들은 대부분 회원 은행 출신으로, 여타의 지방 은행 은행가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어음 평가나 할 줄 알았지 불황기에 할인율을 인하여 통화량을 늘리거나 호황기에 할인율 인상으로 통화량을 줄여야 하는 통화 정책에는 거의 문외한이었다. 이들이 점차 과열되는 주식 시장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FRB는 주식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은행에 대한 할인율을 조정함으로써 은행이 고객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여신하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FRB가 할인율 인상을 통해 은행 여신 이자율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에서 높은 차익을 기대하던 투기꾼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은행도 고객의 주식 일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 주었는데, 이러한 신용 구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는 괜찮지만 일단 하락하게 되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주식 시장이 붕괴했을 때 FRB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했으나, FRB는 즉시 통화 팽창 정책을 쓰는 대신 오히려 통화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택하여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야기했다. 그 결과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는 형편없이 냉각되었다. 이것이 주식 시장의 붕괴가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된 과정이다.

공황의 세계적인 확산을 최소화할 국제 신용 체계는 없었는가? 1차 대전으로 중단되었던 국제 금 본위제가 전후에 재건되었으나 그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하였다. 당시 국제 신용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최대 채권국인 미국이었다. 전전의 영국처럼 전후의 미국도 국제 수지 흑자를 보였는데, 그 대부분은 자본 수출에 대한 이자와 전쟁 채무 원리금이었으며 전통적인 보호 무역 정책으로 인한 무역 수지 흑자도 거기에 한몫을 했다. 채무국들이 무역 흑자를 통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금이 미국으로 유입되었다. 만일 금 유입이 통화 공급 증대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면 사태가 달라졌겠지만,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다. 국제 금 본위제는 결코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강력한 최종

대부자가 유동성과 안정성을 보증해야 작동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전전의 영란은행(Bank of England)과 달리 FRB는 국제 신용망의 유지가 아니라 국내 물가 안정에만 전념하였다. 때문에 FRB는 미국으로 유입된 금을 불태화*함으로써 금 본위제의 국제 규칙을 사실상 지키지 않았다. 미국이 1920년대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좀 더 개방적인 정책을 취했다라면 대공황은 확실히 완화되고 단축될 수 있었을 것이다.

* 불태화(sterilization): 할인율을 인상하거나 국공채를 매각함으로써 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는 것.

26. 위 글로부터 당시의 경제 상황을 파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은 국제 신용 체계의 최종 대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물가 안정에 전념할 수 있었다.
- ② 미국 주식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실질 부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소비도 급감하였다.
- ③ 미국은 1차 대전 이후 금 유입으로 인해 통화 공급 증대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 ④ 다른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전쟁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⑤ 미국의 주택 실수요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27. ㉠과 같이 판단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 ① 어음 평가나 하였을 뿐 호황기에 할인율을 인상하여 통화량을 줄이지 않았다.
- ② 주가 폭락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폭락한 기업에 대해 신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 ③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할인율을 인상함으로써 은행의 여신 활동을 제약하였다.
- ④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담보 없이 주식 매입 자금을 여신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았다.
- ⑤ 주식 시장이 붕괴했을 때도 여전히 금융 긴축 정책을 취하여 물가 하락을 가속시켰다.

28. 다음과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할 때, 대공황의 요인에 대한 위 글의 입장을 약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 ① 전체 소비 감소 규모에서 소득 불균등으로 인한 감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였다.
- ② 주가 폭락 이후의 금융 긴축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은 공황 발생 시점 이후였다.
- ③ FRB의 금융 긴축이 문제였다고 하지만, 긴축 정책의 강도가 주가 폭락 이전과 이후에 서로 달랐다.
- ④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의 소비가 포화 상태였지만, 그것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 ⑤ 국제 신용 체계의 불안정은 어느 한 나라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간에 신뢰와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29~3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은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위험이 커진다. 이와 같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 주체는 자발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이러한 수단은 정보 비대칭 해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선별'과 '신호 발송'으로 구분된다. 정보가 없는 쪽이 적절한 장치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정보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별이다. 이는 정보가 없는 쪽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계약 조건을 제시한 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자발적으로 그러한 장치에 반응하게끔 하는 메커니즘이다. 한편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가 없는 쪽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보나 속성을 알려서 자신의 불이익을 해소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가 신호 발송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수단들의 작동 여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균형이 나타난다. 여기서 '균형'이란 다른 상태로 변화하지 않으려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신호 발송이나 선별이 효과적이라면 '분리 균형'의 상태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리 균형은 속성이 다른 거래 대상이 상이한 가격에 거래되어, 거래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가격 체계로 차별화된 시장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혼합 균형' 상태 하에서는 신호 발송이나 선별과 같은 수단과 상관없이 속성이 다른 거래 대상이 단일한 가격에 거래된다. 따라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의 피해가 증가하여 시장 자체가 축소되거나 소멸될 위험이 커진다.

A 기업은 고품질의 제품을, B 기업은 저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두 제품이 혼합 균형 상태에서 거래된다면 A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역선택이 누적되어 시장 자체가 외면당하면, B 기업까지 손해 볼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A 기업이 B 기업과는 차별화된 제 가격을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신호를 발송했을 때,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소비자는 제품의 속성을 제대로 알게 되어 고품질 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때 B 기업은 신호를 보내지 않고 저가 정책을 취함으로써 시장 자체가 축소되거나 소멸될 위험을 피해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품질 제품 수요자도 혼합 균형 상태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호 발송을 통해 역선택의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시장 참가자 모두에게 유리한 분리 균형 상태가 형성될 수 있는 예이다.

분리 균형 상태와 혼합 균형 상태는 경제 주체의 전략, 시장의 규모, 정보 비대칭의 정도, 시장 참가자의 신호와 선별에 대한 신뢰 수준 등에 따라 유지되거나 소멸한다. 이를테면 분리 균형 상태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들의 변화에 의해 혼합 균형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균형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29. 위 글의 중심 화제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균형의 형태에 따른 경제 주체의 정보 비대칭 대응 전략
- ②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수단 및 이와 관련된 시장 균형의 형태
- ③ 시장 차별화의 지속을 위한 신호 발송 및 선별 행위의 생성 과정
- ④ 정보 비대칭 상황 하에서의 분리 균형과 혼합 균형 상태의 상호 연관성
- ⑤ 신호 발송 및 선별 행위와 관련된 경제 주체의 의사 결정에 따른 손익 변화

30. '선별'이나 '신호 발송'이 나타난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소비자 협회의 인증 마크가 부착된 상품이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비싸게 팔린다.

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본인 부담액을 설정하는 공제 제도를 운영한다.

ㄷ. 기업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 계획이나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ㄹ. 낯선 곳에 가면 현지 물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상점을 방문하여 가격을 물어본 후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한다.

ㅁ. 어떤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 업무 능력이 낮은 지원자는 입사 후에 자신의 능력이 드러날까 봐 지원하기를 꺼린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31. 위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기>의 시장이 도달할 상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보 기>

어떤 상품 시장의 두 기업 '갑'과 '을'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두 기업은 이 표의 정보를 공유하며, 상대 기업도 이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또, 기업이 신호 발송 전략을 택하는 경우에는 고가격을, 신호 자제 전략을 택하는 경우에는 저가격을 책정한다. 표에는 두 기업의 선택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에 각 기업이 얻게 되는 순이익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각 셀의 두 수 중 처음 것은 갑, 두 번째 것은 을이 얻게 되는 순이익을 의미한다. 예컨대, 갑과 을이 모두 신호를 발송하는 경우에 갑은 5, 을은 10의 순이익을 얻는다.

| | | 을의 전략 | |
|-------|-------|---------|--------|
| | | 신호 발송 | 신호 자제 |
| 갑의 전략 | 신호 발송 | (5, 10) | (6, 8) |
| | 신호 자제 | (7, 8) | (7, 7) |

- ① 갑과 을 모두 신호를 발송하는 혼합 균형 상태
- ② 갑과 을 모두 신호를 자제하는 혼합 균형 상태
- ③ 갑은 신호를 발송하고 을은 신호를 자제하는 분리 균형 상태
- ④ 갑은 신호를 자제하고 을은 신호를 발송하는 분리 균형 상태
- ⑤ 균형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

[32~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무제가 책문을 내려 물었다.

삼대의 제왕이 천명(天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징표는 어디에 있는가? 천재지변과 같은 변고는 왜 일어나는가? 사람의 성질과 수명의 실상을 보면, 혹은 어질고 혹은 비루하며, 혹은 장수하고 혹은 요절하니 그 이치는 무엇인가? 정사를 어떻게 해야 하늘에서 감로가 내리고 풍년이 드는가?

동중서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신이 삼가 『춘추』에 실린 지나간 사례로써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매우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국가가 올바른 도리를 잃어 패망에 가깝게 될 때에는 하늘이 먼저 재해를 일으켜 꾸짖고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면 또 괴이한 현상을 내보여 놀라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때에야 손상과 패망이 이르게 합니다. 하늘은 어진 마음으로 군주를 사랑하여 나라의 어지러움을 그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크게 도리를 잃은 세상이 아니라면 하늘은 저들을 지지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온갖 힘을 쓰니, 우리가 할 일이란 끝까지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열심히 도를 실행하는 데 힘쓰면 덕은 날로 일어나고 공적이 크게 쌓일 것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으로 가는 길로서 인의예악(仁義禮樂)은 모두 그 도구가 됩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길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 치란과 흥망은 자기에게 달린 것이요, 하늘이 한번 명을 내렸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을 일으켜 제왕으로 세울 때는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징표입니다. 『서경』에서 “흰 물고기가 대왕의 배로 들어오고, 불이 일어 대왕의 지붕으로 깃들어 까마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서(祥瑞)를 보고 주공이 “보답이로다! 보답이로다!” 하셨고, 공자는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반드시 그 이웃이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이르러 방탕과 나태로 쇠퇴해진 나라의 군주가 백성을 통솔하여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형벌의 시행이 적중하지 못하여 사악한 기운이 발생하고, 이것이 아래 쌓이니 위에는 원망과 증오가 생겨 상하가 조화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음양이 뒤틀리고 요사스러운 재앙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명(命)이란 하늘이 내린 명령이요, 성(性)이란 생명체의 본바탕이라고 신은 들었습니다. 수명의 장단, 성질의 어둡과 비루함이 생기는 것은 도공이 그릇을 빚고 대장장이가 철기를 만들듯이 하늘이 사람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바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공자께서는 ㉠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눕기 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순 임금께서 덕을 베풀자 백성들은 어질게 되고 장수했으며, 결·주 임금이 폭정을 행하자 백성들은 비루해지고 요절했습니다.

신이 삼가 『춘추』에 실린 글을 살펴 왕도의 시초가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 그것은 정(正)에 있었습니다. ‘春王正月’이라 하여,

‘정’은 ‘왕’의 다음 자리에 있고, ‘왕’은 ‘봄[春]’의 다음 자리에 있습니다. 봄은 하늘이 행하는 것이요, 한 해의 시작을 제정하는 것은 제왕의 일입니다. 따라서 그 뜻은 위로는 하늘이 행하는 바를 받들고 아래로는 자신이 행하는 바를 바르게 함으로써 왕도의 시작을 정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왕이 된 자가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면 마땅히 하늘에서 그 단서를 구해야 합니다.

32. 무제의 질문에 대한 동중서의 답변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인의예악으로써 다스리고, 형벌을 남용하면 안 된다.
- ② 천재지변과 같은 변고는 제왕이 천도를 따르지 않고 정치가 어지러워졌을 때 나타난다.
- ③ 제왕이 천명을 받았다는 징표는 하늘만이 보여 줄 수 있는 현상으로서 옛 책에 기록되어 있다.
- ④ 절후(節候)의 변화가 순조롭기를 바란다면 제왕은 봄에 만물을 소생시키는 하늘을 본받아 정월을 제정하듯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한다.
- ⑤ 사람의 성질과 수명이 다른 이유는 하늘이 사람을 균등하게 만들어 내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제왕은 그것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33. 동중서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본성은 이익을 좋아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이 본성을 좇기 때문에 사양지심이 없어지고 남을 해치며 비방하는 일이 생긴다.
- ② 옛것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훌연히 새것이 된다. 선왕의 예교(禮敎)는 시대의 용도에 따른 것이니, 시대가 지났어도 폐기하지 않으면 백성에게 요괴가 된다.
- ③ 사물이나 현상은 자신과 다른 것을 피하고 같은 것끼리 어울린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은 각기 서로 끌리어 생겨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보통 그 연유를 알지 못하여 우연으로 치부해 버린다.
- ④ 자연계는 인간 세상과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재하고 운행한다. 하늘은 사람이 추위를 싫어한다 하여 겨울을 물리지 않으며, 땅은 사람이 먼 거리를 싫어한다 하여 광야를 거두지 않는다.
- ⑤ 천지의 도는 작위(作爲)가 없으니 만물은 스스로 서로 다스리고 풍족해질 것이다. 천지는 짐승을 위해 풀을 만들지 않았지만 짐승은 풀을 뜯고, 사람을 위해 짐승을 만들지 않았으나 사람은 짐승을 잡아먹는다.

34. 위 글의 맥락에서 ㉠을 이해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상 만물이 하늘의 뜻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온 백성이 고루 제왕의 은덕을 입을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 ③ 제왕의 덕치가 백성을 교화하는 근본임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정치 운영에서 제왕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제왕과 백성의 자질이 다름을 전제하고 있다.

[35~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예술의 기원은 무엇인가. 예술은 번식과 생존에 선택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진화심리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들이 처음에 주목하였던 것은 성 선택 현상이었다. 동물이 생존 경쟁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배우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아름답게,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요란하게 꾸미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번식을 위해서 적절한 짝을 찾는 일이 중요한 것은 인간의 경우에도 다를 게 없다. 남성은 자손을 낳아 길러 줄 수 있는 여성을 원하고, 여성은 임신, 수유, 양육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남성을 원한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른 구애 전략으로 나타난다. 남성은 자신을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며 성실하게 보이려 하고, 여성은 자신을 젊고 아름다우며 건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예술과 연관 가능성이 큰 부분으로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여성의 구애 전략이다. 이는 여성이 젊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치장하는 일로부터 예술이 발생했다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예술은 구애를 위한 여성의 화장, 장식, 치장 등의 소산물이다. 예컨대 카밀라 파워 a 같은 이론가는 거의 모든 원시 부족의 여성에게서 볼 수 있는 붉은색의 보디 페인팅이 여성의 임신 능력을 상징하는 생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 관점은 예술의 역사에서 어떻게 남성 예술가가 등장하였고, 심지어 여성 예술가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사회적 차별로 인해 여성 예술가의 기근 현상이 벌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남성 예술가가 여성 예술가보다 많은 이유는 설명해 주어도 남성 예술가의 출현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남성 예술가의 출현과 번성은 남성에게도 예술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데, 여성의 구애 전략이라는 모델로는 이러한 점을 설명하기 힘들다.

‘번식을 위한 예술’이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남성의 예술에 대한 욕구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오프레이 밀러는 남녀를 불문하고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구애 경쟁이 있었고 이것이 예술을 출현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보디 페인팅이나 화려한 장식이 원시 부족의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 단점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진화심리학의 설명에 따르면 여성이 선호하는 남성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성실한 남성이다. 그런데 맹아적 예술 행위인 보디 페인팅이나 화려한 장식이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예술의 기원을 성 선택으로 좁히지 않고 예술이 인간의 생존 전략에 부여하는 차별적 이점에서 찾으려는 시도들도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원시 예술에서 흔히 보이는 기하학적 문양은 거칠고 위험한 자연적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예술적 표현이며, 화장이나 장식은 거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예술적 기술이다. 예술 행위를 통해 인간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자연을 조절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은 생존의 기술은 아니지만 생존을 강화시켜 주는 기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35. <보기>의 관점에서 예술의 기원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관점을 비판한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보 기>—

예술 작품은 아름다운 것이다. 예술 작품들의 공통적인 성질은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가능한 듯이 보인다. 아름다운 형식이다. 각각의 작품 속에는 조화로운 방식으로 결합된 선들과 색채들, 특정한 형태들과 형태들의 관계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일체의 관심과 이익에서 벗어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 ① 원시 예술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그와는 다른 현대 예술의 특징을 도외시하였다.
- ② 예술이 실용적 목적을 벗어난 순수한 형식의 구현이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 ③ 걸작과 졸작을 구별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을 마련해 주지 못하였다.
- ④ 예술이 아름다움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는 점을 보지 못하였다.
- ⑤ 아름다움을 느끼는 인간의 마음을 해명하려 하지 않았다.

36. ‘번식을 위한 예술’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성의 구애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이 다양한 예술적 방식으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 ② 남녀 사이의 맹아적 예술 행위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예술이 인간의 보편적 무의식 세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 ③ 여러 동물의 예에서 보이듯이, 경쟁에서 이긴 남성들이 여성 집단을 차지할 뿐 짝짓기에서 여성의 선택권은 없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 ④ 화장이나 보디 페인팅 같은 신체의 장식이 대개의 원시 사회에서 구애 행동의 일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종교적 제의의 일부로 행해졌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 ⑤ 원시 예술을 발전시켰던 시기의 경제·사회 체계에서는 성 역할이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남녀의 구애 행동이 체계적으로 차별화된 것이 아니었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37. <보기>의 사전 뜻풀이 중, ㉠을 설명한 항목은?

—<보 기>—

같다[간따] [같아, 같으니] ①【…과】(‘…과’ 성분은 주로 ‘과’가 생략된 단독형으로 쓰인다) ①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것과 다르지 않다. 『백옥 같은 피부. ②(‘같은’ 꼴로 체언 뒤에 쓰여)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여행할 때엔 신분증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②【선행 명사는 단독형으로만 쓰인다】 ①(‘같은’ 꼴로 쓰여) ‘…라면’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옛날 같으면 남녀가 한자리에 앉는 건 상상도 못 한다. ②(‘같은’ 꼴로 동일 명사 사이에 쓰여) ‘기준이 될 만한’의 뜻을 나타내는 말. 『말 같은 말을 해야지. ③(‘같아서(는)’ 꼴로 ‘마음’, ‘생각’ 따위의 명사나 일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지금의 마음이나 형편에 따르자면’의 뜻으로 쓰여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 『욕심 같아서(는) 모두 사 주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된다.

- ① ① - ① ② ① - ② ③ ② - ①
- ④ ② - ② ⑤ ② - ③

[38~4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피해야 할 세 가지 도덕적 상태로 ‘악덕’, ‘집승 같음’과 더불어 아크라시아(akrasia)라고 불리는 ‘자제력 없음’을 든다. 통상 자제력 없음은 스스로 최선이라고 이성적 판단을 내린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할 수는 없다. 그에 의하면 모든 악행은 무지의 탓일 뿐이다. 그러나 ㉠ 통상의 의미에서의 자제력 없음이란 소크라테스의 견해에서 보면 성립하지도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실제와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알면서도 자신이 내린 최선의 판단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것이다. 자제력 없는 사람도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는 그 나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백히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나쁜 행동을 선택할 뿐이다. 건강을 위해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음식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를 자제력 없음이라고 본다면,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크라시아를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의 경우, 음식에 대한 욕구가 지금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성의 통제를 적어도 그 순간에는 제압한 듯이 보인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모욕을 당했음을 이성이 알려 주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싸워야 한다고 감정이 이끌어 가서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욕구에 대한 자제력 없음이 분노에 대한 자제력 없음보다 더 부끄러운 이유는 이성의 역할이 훨씬 더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크라시아는, ‘악덕’ 중의 하나로 아콜라시아(akolasia)라고 불리는 ‘무절제(방종)’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아크라시아와 아콜라시아는 육체적 욕구와 쾌락의 영역에 관계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걱정, 명예, 승리 등 육체적인 쾌락이라 할 수 없는 것들도 아크라시아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크라시아가 관련되는 대상의 영역이 더 넓다.

대상의 영역만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한다. 그것도 이성적 선택에 의해서 쾌락 자체를 추구한다. 그런 사람이 무절제한 사람이다. 무릇 이런 사람은 뉘우침이 없고, 뉘우침이 없는 자를 고칠 수는 없다. 뉘우침이 없는 것은 확고한 이성적 결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런 확고한 이성적 선택이라는 계기가 없는데도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제력 없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알면서도 자신의 앓과 다르게 실천한다고 하는 경우다.

자제력 없는 사람은 올바른 이치에 따라 행동하지 못할 만큼 욕구와 분노에 지배당하지만, 그 쾌락을 무한히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까지 지배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돌리도록 쉽게 설득되지만, 무절제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 무절제한 사람보다는 낮고, 또 무조건 나쁘지도 않다고 보았다. 그가 당초에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8.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 ① 아크라시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성이 감정에 양보해야 한다.
- ② 아콜라시아의 촉발에 관련되는 대상은 아크라시아의 경우보다 다양하다.
- ③ 아크라시아의 경우에 겪는 이성과 욕구의 갈등이 아콜라시아의 경우에는 없다.
- ④ 아크라시아 상태에 빠지는 것은 그 전에 내린 이성적 판단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 ⑤ 아콜라시아 상태에서는 이성적 선택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39. 아콜라시아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수험생 A군은 컴퓨터 게임만 시작하면 낯밤을 새우는데, PC방 앞을 지날 때마다 오늘은 조금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PC방에 들어간다.
- ② 속도광 B씨는 질주할 때 느끼는 스릴을 사랑하는데, 스피드에 대한 그의 멈추지 않는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 ③ 자신의 패션 감각이 남보다 낮다는 평판에 자부심이 대단한 C군은 수입의 거의 전부를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데 지출한다.
- ④ D씨는 아내의 권유에 따라 해마다 연초에 금연을 시도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곤 한 지가 벌써 십 년이다.
- ⑤ 국가 대표 선수 E군은 국위 선양을 위해 가까운 친지의 장례식 참석도 포기한 채 매일 연습에 매진한다.

40. ㉠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콜라시아의 가능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 ② 악행은 결국 행위자 자신에게도 나쁘다는 것을 함축한다.
- ③ 인간이 이성적인 한 나쁜 것을 원할 수는 없음을 전제한 진술이다.
- ④ 앓은 좋음이요, 무지는 나쁨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견해이다.
- ⑤ 아크라시아는 ‘등근 사각형’처럼 일종의 모순이라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